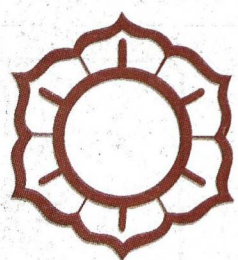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흙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2005년  
1월 1일  
토요일  
제63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는 믿음을 생기게하고 믿음은 진리를 구한다.  
믿음이 높으면 진리는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는  
니라. 믿음은 지혜의 원천이며, 인간 정신의 골격이  
며, 삶의 지표가 되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종 종령 효강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려움의 질곡에서 온 나라가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에도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노여움으로 편안한 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진 이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위정자들은 어리석은 정략 정책으로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서민 대중은 이러한 와중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분노와 실

## 종령 신년법어

망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현실도 온 국민이 화합하고 노력하면 끝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진 이들이 양보를 하고, 실의에 빠진 이들이 용기를 내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떠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

기복적이고 소승적인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먼저 정화함으로써 그것이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

##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 불자

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불법을 펴는 승직자들은 청빈한 생활과 청정한 수행으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불자들이 또한 부처님 앞에서 오직 내가 잘되고 내 가족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도록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을해에도 변함없이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시도록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음마니반메 흙을유년 새해 아침

## “윤원대도의 만다라” 총지종 종조 “원정기념관”개관



총지종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종단 스승들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 등 교계 귀빈들이 “원정기념관” 개관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12월 2일 총지사에서 효강 종령을 비롯하여 승단의 스승과 교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며 관음종 총무원장인 홍파스님, 불교방송 이성언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지종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법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원정대대사에게 바치는 고유, 유가삼밀, 원정대대사 공식소개, 봉행사, 법어, 축사, 발원문, 헌화 및 축가, 반야심경 순으로 진행됐다.

대대사님께서는 조선조의 억불정책 속에서 그 맥이 끊어져 버린 밀교를 이 땅에 다시 중흥시켰으며, 밀엄국토 건설과 밀교중흥의 대원으로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경을 소의경전으로 정연한 교상과 사상을 갖춘 정통밀교 종단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셨다. 그러나 원정대대사님의 큰 뜻을 제자들이 따르지 못해 죄송하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성사님의 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에서 “오늘 이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교도들은 원정 대대사께서 뿌리신 정통밀교의 씨앗을 잘 가꾸어 이 땅에 윤원대도의 만다라가 활짝 피어나게 할 것이며,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 대대사님의 참된 유훈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승직자는 창종 초기의 열화와 같은 교화정신을 살리고 교도들은 초발심의 정진력으로 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우승 총리원장은 봉행사에서 “원정

대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며 관음종 총무원장인 홍파스님은 축사에서 “종조원정 기념관 개관법회가 총지종의 종풍과 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부처님의 손길에 저 멀리까지 펼칠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종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고 밝혔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원정 기념관” 개관법사를 계기로 종단의 중흥을 기하고, 교화의 활성화와 함께 각종의식의 개편과 불단의 장엄화, 도제양성, 사회 복지활동 등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종조 탄신 100주기를 맞이하여 각종 연구와 세미나를 준비하고, 종단의 종풍을 진작시킬 예정이다.

## 총지종 캠페인

### 수능입시 부정

조선조 순조18년(1818년)에 성균관 사생 이영하는 인재의 등용문인 과거시험에서 부정과 비리가 많다고 상소를 올리면서 시험의 부정 형태를 지적했다. 다른 사람이 답을 대신 작성해주는 차출차작(借述借作), 시험장에 컨닝 할 책을 갖고 들어가는 수종책(隨從摺冊), 수험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입문유린(入門踰限), 답안지를 바꿔치는 정권분담(呈券分遞), 시험장 밖에서 책을 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답안을 작성하여 다시 시험장 안으로 들어오는 외장서입(外場書入), 사전에 미리 과거 시제를 알아내는 혁제공행(赫捷公行),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른 척 해줄 사람으로 시험 감독관을 바꾸는 이졸환면출입(吏卒換面出入),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 자체를 우회하여 답안지에 장난치는 자축자의환동(字軸恣意幻弄) 이상이 성균관 사생 이영하는 지적한 과거시험 부정 형태 8가지다.  
2004년 대학입학 수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학생들의 수능부정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수능성적이 무효처리 된 학생은 200명이 넘고 그중 일부 학생은 구속까지 되었다. 더욱이 이런 조직적인 수능부정이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현재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물론 수능시험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마땅한 처사이다. 또한 이번 수능시험 부정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 학생들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생각도 펼쳐 버릴 수가 없다. 자녀들에게 일류대학만을 강요하는 학부모들, 일등만을 인정해주는 학교, 모든 능력과 소질을 학교성적이나 출신대학으로 결정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한 기성세대, 어느 누구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자녀나 학생들에게 주는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그들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수능입시 부정이라는 여허구니없는 사건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죽비소리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면 그 때문에 그는 더욱 약해지리.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화내는 것을 보고 마음세김으로 고요함에 이르면 자신을 위하고 또 남을 위하는 둘 다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쌍둥이까야』 중에서

## 총리원장 신년사



총지종 총리원장 우승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짐과 각오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처님의 법을 얼마나 실천하였는가? 또한 새해에 가졌던 다짐과 각오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새로운 마음가짐과 수행자세

우리 종단도 지난 한 해 동안 효강 종령님을 모시고 수명관정수계법회, 종조원정 원정기념관 개관법사, 강남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크고 작은 불사를 원만히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밀법(密法)을 펼쳐주시는 원정대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종단을 위해 애써주시는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을유년은 닭의 해입니다. 닭은 새벽에 일어나 모든 사람들의 아침을 밝혀주는 동물입니다. 닭이 아침을 밝히듯이 우리 종단도 지나간 시간 보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더 큰 분발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세월이 종단의 초석을 다지고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화사한

꽃을 피우도록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종단에 걸맞는 중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무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됩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사원의 교도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아쉽고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굳건히 이겨내 주시고, 종단의 모든 일에 더 큰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넓은 마음과 따뜻한 대화, 발전적인 건의로써 종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종사자들이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 자신이 종정업무를 파악하느라 매우 바빴던 한 해였

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물론이고, 새로운 불사의 추진으로 한 해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종단적으로 지난해 보다 더욱 바쁜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사원의 한공불사, 경로법회, 수련대회와 더불어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교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사(佛事)를 통해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의 신심은 더욱 깊어지고, 즐겁고 신바람나는 수행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단과 교도들이 일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단은 더욱 깊고 높은 수행과 정진으로, 교도들은 승단의 모든 불사에 대한회심과 보살심으로 서로가 맞물려져야 하겠습니다. 그 바탕에는 마땅히 개인의 대정진과 실천이 따라야 합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수행자세를 굳게 지녀야 하겠습니다. 새해에 맞이하는 마음자세는 내일을 더욱 빛내기 위한 힘찬 출발과 다짐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스승님과 보살님들께 대비로자나부처님의 위신력과 가지력이 시시처처(時時處處)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기 34년(을유년) 새해

## 새해 공공서원

- ▲총지종 교세발전
- ▲부국강병국태만안
- ▲조국평화통일
- ▲일체교도가정제재단
- ▲일체교도가정소구역의
- ▲영일체인경에 일체교도가정
- ▲00사교화발전
- ▲재난불생 산업발전
- ▲일체교도 오세대제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교도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 총지종!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윤원대도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승단은 엄격한 계행과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 종령 효강

- |             |             |
|-------------|-------------|
| 총리원장 우승     | 중앙종의회 의장 의강 |
| 재무부장 시정     | 부의장 원송      |
| 사회부장 환수원    |             |
| 교정부장 지희심    | 사감원장 법성     |
| 서울경인 교구장 지성 | 부산경남 교구장 법혜 |
|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 충청전라 교구장 법성 |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 총회 의장 신년사



중앙총회 의장 및 삼심사 주교 의강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해를 지는 나조와 더

불어 먼 뒤안길로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피맺힌 절규와 항의가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위정자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들의 파렴치한 비리와 부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나해를 조용히 반성하면서 적어도 새해 율유년은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 맡은 자기직업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람과 생동감 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지심으로 사원합니다.

해가 바뀔 때 마다 "신년사"라는 내용으로 두서없는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만

이번만은 다른 감회가 스스로 젖어 드는 느낌을 역제하기 힘듭니다.

돌이켜 보면 승단의 일원으로 입문한 지 어언 24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함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제 정년 퇴임을 얼마 앞두고 새로운 한해를 맞으

두는 더욱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희망찬 율유년의 새로운 한해를 조심스럽게 설계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한해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승단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엄정하게 변화해가는 시류와 환경, 의식

는 승단의 모습으로 거듭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교도대중은 스승의 말을 믿고 따르고 배우려고 노력할 것이며 스승의 위상은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입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평소 존경하는 어느 수행자의 수상집을 나는 가끔 읽고 또 새겨 봅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새해 율유년은 나라의 경제질서가 점차 회생되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들이 웃이 희망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지고 승단과 교도 대중이 더욱 화합단결하여 정통밀교 교단으로써 위상을 공고히 하여 우리모두 불국정토 건설에 더욱더 앞장서야 하겠으며 전승단은 물론 전국에 계신 보살님과 각자님 육체 건강하시고 사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스로 비우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만이 능히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옛 선사의 법문처럼 새해에는 더욱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한번 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 스스로 비우고 남을 용서하는 지혜

러니 지나온 시간과 공간은 오직 불, 법, 승 삼보의 깊은 은혜와 교도 대중 여러분의 정성과 도움으로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을 보내고 새해 율유년의 태양이 힘차게 떠올라 대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

구조, 생활습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실력 배양과 기초교양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상과 아집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찾아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와 애정이 넘치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고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빠져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없이 섣불리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 황국단풍의 아름다운 계절도 저물고 갑신년 한 해도 훌쩍 흘러갑니다.

목은 상처들을 떨쳐 버리고 두 나래를 활짝 펴고 끼고요! 개명을 알리는 닭의 소리.

우리모두 무명에서 깨어나 손에 손을 잡고 율유년 새해에는 밀업국도 일구어 힘차게 나아가시다. 우주만상이 조화속에서 아름다움이 생성되듯이 소원성취를 위하여 화합합시다. 화합의 전제는 관용과 용서일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온 우주와 함께



부산경남교구장 해암

### 관용과 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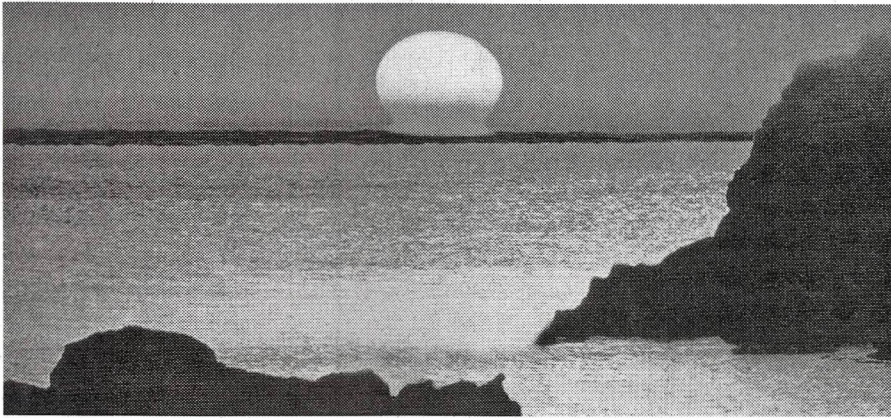
여러분 굳건한 신심으로 마음밭에 원(願)의 씨를 뿌려 육자진인 공력으로 해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하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불자

아름다움이 생성되듯이 소원성취를 위하여 화합합시다. 화합의 전제는 관용과 용서일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온 우주와 함께

### 각 교구장 신년사



2005년 율유년 새해아침의 찬란한 태양이 사바세계에 밝은 빛을 발하였습니다. 율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단과 교도보살님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바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창조적 개혁과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총지종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2의 창조'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에는 교구와 사원의 발전을 더욱 배가시켜야 합니다. 포교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승단의 생명력을 증장시키고 중생제도에 전념



서울경인교구장 지성

### 포교방법의 개선을 통한 중생구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었던 한해였고 발전의 재도약을 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배가시켰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과 정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발전시켜 정통밀교승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

가야 할 것입니다. 교구장으로서 승단발전과 중생구제에 더욱 매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금년에도 소원성취하시고 좋은 불법(佛法)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했던 갑신년

이 좌절과 절망 속에 어느덧 저물어 가고 희망의 율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남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은혜 입은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 둘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중한 은혜라 할 수 있는 부모은혜, 삼보은혜, 나라은혜, 중생은혜의 사대은혜와 철육같은 어둠속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종조님의 은혜야말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종단은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종조 원정기념



충청전라교구장 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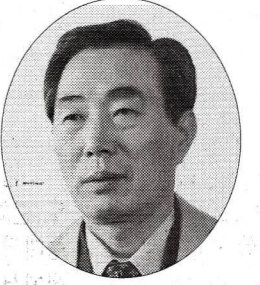
### 종조님의 법과 생애를 통해 자신을 조명

관 개관이었습니다. 때늦은 후회와 송구스러운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종단발전엔 커다란 초석을 놓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는 뜻하여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금년에는 종조님을 바로 알고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조님을 통해 내 자신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종조님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종조님의 구도 과정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길입니다. 고행이 없는 사람은 종조님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간난(艱難)했던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종조님을

종조님께서 가르치고 남기신 유훈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종조법설집을 몇 번 읽었다고 종조님을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적인 실천을 통해서 종조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의 이러한 진지한 자세가 없이 비단 양적으로 발전하더라도 먼 훗날 텅 빈 건물만 남는 무기력한 종단, 비전 없는 종단이 되고야 합니다. 종조님께서 중생 구제의 대비원을 세워 이 땅에 오시어 정통 밀교비법으로 깨달음을 얻은 실천법을 체로 삼아 종조님과 일치하는 수행을 할 때 우리 종단의 미래는 찬연하게 빛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보살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서원 드립니다. 성도합니다.

###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사실 가고 오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매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 순간(찰나)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대구경북교구장 지광

### 매사에 소중한 시간을

행복을 이루는 것은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원당에서 열성과 불공하는 이유도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하고자 제어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쁜 노력이 바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용맹 정진하여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데 만 힘 쓰지 않았는지, 나만 잘 살고 욕심만 내는 불공을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행복이란 알고 보면 굉장한 쉬운 원리로 움직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수레바퀴가 마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자연히

행복은 따릅니다. 결국 우리가 서원당에서 열성과 불공하는 이유도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하고자 제어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쁜 노력이 바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용맹 정진하여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꽃같은 세상을 위해 서울·경인교구는 함께 합니다

### 벽룡사

주교: 전수, 환수원  
☎ (02)889-0211

### 시법사

주교: 정사, 지성, 전수, 승효제  
☎ (032)522-7684

### 밀인사

주교: 정사, 원송, 전수, 인법계  
☎ (02)762-1412

### 정심사

주교: 전수, 진일심  
☎ (02)433-0374

### 관성사

주교: 정사, 해정, 전수, 정법계  
☎ (02)736-0950

### 법천사

주교: 정사, 시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 실지사

주교: 전수, 선도원  
☎ (02)983-1492

### 지인사

주교: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 총지사

주교: 정사, 법등, 전수, 인덕심  
☎ (02)568-0802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 서울·경기교구 일동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②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야수다라보살(耶輸陀羅菩薩) · 여의륜보살(如意輪菩薩)

지난 호에서 대수구보살(大隨求菩薩)과 슬도파대길상보살(率觀波大吉祥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야수다라보살(耶輸陀羅菩薩) · 여의륜보살(如意輪菩薩)에 대해 살펴 본다.

야수다라보살(耶輸陀羅菩薩)

야수다라는 석존께서 왕자이셨던 시절, 왕자비(王子妃)로 널리 알려져 있던 이름으로 많은 경전에 등장하고 있다. 『대일경』에서는 지명칭자(持明稱者)라고 한다.

여성이 만지면 꽃이 핀다고 하는 만초(蔓草)의 일종으로서 프리양그(priyangu)를 손에 들고 있는 보살이다.

『대일경소』에 의하면, 이 꽃은 서방에서 나는 귀중한 꽃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증생의 마음에 뿌린 보리심(菩提心)의 종자에 담겨 있는 각종 공덕을 저장하고 만들어 내는 작용을 상징하고 있다.

이 야수다라보살의 밀호는 시현금강(示現金剛)이다. 공덕을



야수다라보살

여의륜보살(如意輪菩薩)

여의륜보살은 여의륜관음이라고도 한다. 이 보살은 대개 팔이 두 개인 보살(二臂)이나 네 개(四臂), 여섯 개(六臂), 여덟 개(八臂)의 팔을 지닌 경우가 많다. 또 앉아 있는 좌상(坐像)이나 서 있는 입상(立像)이 주를 이룬다. 『대일경』이나 『대일경소』에는 설해하지 않고 있지만, 현도만다라는 『관자재보살여의륜유가』에 근거한 육비반가상(六臂半伽像)을 그리고 있다. 여의륜주(如意輪珠)는 복덕(福德), 법륜(法輪)은 지덕(智德)을 나타내며, 이 공덕에 의하여 증생고(衆生苦)를 벗어나 세간출세간의 원(願)을 빠짐없이 만족시킨다. 또 육비(六臂)에서 각각 육도구제(六道救濟)의 작용을 보는 설도 있다.

이 여의륜보살의 밀호(密號)는 지보금강(持寶金剛)이다. 보배를 지니고 있는 보살이란 뜻이다. 그 보배가 여의륜(如意輪)의 구슬이다. 그래서 삼매야형(三昧耶形)도 여의보주(女醫寶珠)이다. 존형은 황색으로 세자제왕(世自在王·아미타여래를 말함)의 화불(化佛)이 있는 관(冠)을 쓰고, 반가(半伽)로 붉은 색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몸에는 여섯 개의 팔을 지니고 있다. 오른 쪽 첫 번째 손에는 사유(思惟)의



여의륜보살

대세지보살은 증생의 마음에 뿌린 보리심의 종자 여의륜주는 복덕, 법륜은 지덕

나타내어 보인다는 뜻이다. 삼매야형은 화지(花枝)이다. 꽃가지란 뜻이다.

존형(尊形)은 황금색으로 오른손에 여의(與願)의 인을 맺고, 왼손에는 풀잎(草葉)을 들고 있으며, 왼쪽 무릎을 세우고 붉은색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은 내오고인(內五鈷印)이다. 다섯개의 화살모양의 끝이 안쪽으로 모아진 오고저(五鈷杵)의 모습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얌 야수다라에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얌! 야수다라에게! 사바하'이다.

형(形), 두 번째에는 여의륜주(如意輪珠)를 들고, 세 번째에는 염주(念珠)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으로는 광명산(光明山)을 이루만지고, 두 번째로는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세 번째로는 보륜(寶輪)을 들고 있다. 결인의 모습은 여의륜관음인(如意輪觀音印)이다. 이 인은 합장하고 두 인지(人指)를 구부려 보형(寶形)처럼 하며, 두 중지(中指)를 연화(蓮華)처럼 하며, 두 엄지를 세워서 합친다. 진언은 '옴 한드마 시타마니 진바라 훔'이다. 뜻은 '옴! 연화(蓮華)와 여의보주를(如意寶珠)를 지닌 자여! 빛나라! 훔!'이다.

<자료정리 : 법장원>

생활속의 밀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다

▶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영원한 길을 남겨 주셨다. 사람과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의 주된 동기는 자신이 경험한 정신적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법과 진리를 우리 자신들이 실천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깨달음이 일어난다. 지난 2,500년에 걸쳐,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 천명의 위대한 선사들에 의해 생명력이 지탱되어 왔다. 수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증하였고 부처님께서 이룬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우리는 바로 내일 계신 부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밀교에서는 모두가 부처님이요 가르침이며 그 모두가 법신 대일여래의 당체법문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 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일이다. 우리는 성현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만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우리는 행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늘 우리들은 더 큰 만족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고 못마땅함이 마음 속에 가득차 있다. 그러한 삶은 수행의 길이 아니다. 우리의 수행은 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

그리고 나의 행복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 자신의 행복감은 더욱 커진다. 타인에 대한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개발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제거시키도록 도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역경과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것은 생애에 있어서 성공의 주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 모든 행복의 열쇠는 바로 내적인 평화에 있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다.

▶ 어제와 오늘조차도 똑같지 않듯이 매사 모든 일은 내 주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만약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순간들을 늘 자각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항상 방황하게 되고, 늘 현재는 괴롭기만 해진다. 수많은 생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인간 세상이 라고 부르는 여기에는 영원한 생이란 없으며 신의 세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영역에도 그 어디에도 영원한 생은 없다.

그러므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를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번뇌들은 서서히 사라진다. 괴로움도 사라진다.

만약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움켜쥐고 두터운 번뇌 안에 있게 되고 수많은 욕망과 삼법, 어리석음 속에 가두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그 번뇌들은 줄어들어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나를 바로 보는 수행이 필요하다. 나를 바로 보았을 때 나는 훨씬 더 반듯한 사람이 되고, 참다운 수행자가 된다. 참다운 수행자는 나를 돌아보는 자세를 지닌 자라 할 수 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율초불공을 통해서도 좋고, 자성일 불공때도 좋고, 아니면 늘 행하는 아침저녁의 정송(定誦)시간이어도 좋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법경 / 통리원 시무국장 / 연구원>

나의 행복만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진언수행의 길

조상불공(祖上佛供)이란 선망부모(先望父母)와 조상의 영식전도를 위하여 올리는 모든 불공을 말한다. 일반적인 재불공(齋佛供)을 말한다.

이 재불공(齋佛供)은 기제일에 올리는 재불공(祭佛供)과는 다르다. 선망부모와 조상들을 엄숙히 공경하여 섬기는 불공으로써 자식과 자손된 도리로서 올리는 것이 재불공이다.

이 조상불공은 선망부모와 조상뿐만 아니라 현재 부모에게 효순하는 근분을 갖게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반대로 자녀들의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위하여 올리는 불공이 자녀불공이다. 한마디로 '자녀잘되

기'를 서원하는 불공이다. 대개 49일 불공기간에 서원하는 경우가 많다.

진호국가불공시 상반기에는 '자녀잘되기'를 바라는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하반기 49일불공에는 '조상불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반기 49일 불공이 끝나는 7월 15일에는 총지종의 우란분절로서 선망부모와 조상의 영식전도를 위하여는 날이기 때문에 하반기 49일불공에는 '조상불공'을 많이 한다.

우리 종단에서 조상불공시 그 조상의 뜻에 는 크게 두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조부, 고조부, 증조부와 그 위의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혈연적인 조상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나의 전생'으로서의 조상을 의미한다. 불교의 윤회적인 입장에서 본 조상이다. 과거 전생으로서 나 자신의 조상을 가리킨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끝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b>법 황 사</b></p> <p>주교 : 전수. 법수원</p> <p>☎ (062)676-0744</p>	<p><b>혜 정 사</b></p> <p>주교 : 전수. 수증원</p> <p>☎ (043)256-3813</p>	<p><b>만 보 사</b></p> <p>주교 : 정사. 법 성</p> <p>전수. 정일혜</p> <p>☎ (042)255-7919</p>	<p><b>백 월 사</b></p> <p>주교 : 정사. 법 우</p> <p>전수. 인지심</p> <p>☎ (042)527-5470</p>	<p><b>흥 국 사</b></p> <p>주교 : 전수. 밀공정</p> <p>☎ (063)224-4358</p>
--	--	---	---	--

총지논단

<기획연재>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계(義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승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교(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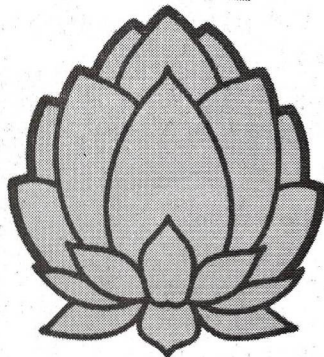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마음

이 마음을 잘 닦으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순하며 가정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信)을 두고 남에게 불의하지 말며 산목숨 죽이지 말고 남의 재물 도둑질 말며 내 가족(家屬)두고 남의 사람 욕심 두지 말며 악담하지 말며 두 말로 사람을 속이지 말며 말을 이리저리 꾸미지 말며 성내지 말고 남을 못된 험담 말며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니라.

척사입정(斥邪立正)

사(邪)는 물리치고 바른 것을 세우자.



지비용(智悲用)

지혜있고 어질고 용맹있고, 지혜있고 자비있고 용맹있는 것이 지비용이다. 부처는 법장부처가 있고, 도술전부처가 있고, 자성부처가 있다. 도술전부처는 천상천하에 하나이시니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니 가까이 내 마음 가운데

데 있는 것을 먼저 알라.

자성부처님께 참회하는 말씀



사(邪)를 물리치고 바른 것을 세우자  
복업을 닦고 고집을 세우지 말지니라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없애고 지혜있고 자비있고 용맹을 발심하겠습니다.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없애고 부모에게 효순하고 가정에서 화목 화순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회사하겠습니다

나. 상을 없애라

신상단엄(身相端嚴)과 오욕쾌락(五慾快樂)을 구하지 말고 아끼고 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일체중생을 이익

하게 하며 재물과 학문과 형제와 일가를 유지하지 말며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행한다고 뜻이 높아서 널리 공경

하지 아니하여 내가 인의예지신을 알아 행하거나 너 같은 데 공경할 수 없다하지 말며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또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풀지 말며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또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풀지 말며 경계하여 취하고 버리기를 분별하지 말며 내가 능한 것이 있다고 중생을 업신여기지 말며 피면에 계행만 지키고 마음에 어진 계행을 과하지 말며 지옥은 싫어하고 천상에 나기를 원하지 말며 오래 살고 신선된다 하고 복업을 닦으며 고집을 세우지 말지니라.

참회진리 문답

- 문: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원은 일사라도 두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쳐집니까?
답: 본심진언 몸마니반메혹을 항상 묵념하며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없애고 지혜있고 어질고 용맹을 발심하는 데 마음이 고쳐집니다.
문: 조상의 기제사와 묘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답: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순하는 근본을 굳게 심으려고 행사를 합니다.
문: 서원 향교 향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답: 어진 사람 숭상하는 마음을 세우려고 향사를 합니다.
문: 부처님께 하는 불공은 무슨 의미입니까?
답: 중생의 마음 닦고 밝히는 법을 세우려고 불공드립니다.
문: 나라에 대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답: 각기 직분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충성이 됩니다.
(자료제공: 총학연구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공항장애



주부 J씨는 몇 개월 전부터 운전하는 도중 갑자기 심장이 심하게 뛰고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고 진땀이 흐르면서, J씨는 이렇다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아닐까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런 증상은 깨끗이 사라졌다.

이 갑작스런 증상이 혹시 심장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J씨는 응급실로 달려갔고,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으나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며칠 후 J씨는 다시 똑같은 증상을 겪었고, J씨는 죽거나 자신이 행동

을 조절하지 못하고 미쳐버리는 양을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대수롭지 않은 신체적 감각을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생각이 공항발작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설

의사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거나 죽을 것만 같았던 J씨의 극심한 불안이 건디기 힘들고 아주 두렵기는 하지만 공항발작 때문에 실제로 죽지는 않는다고

공항발작은 신경의 중추에 화학적 불균형  
일정기간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안정

불안하게 생활해야 했다. 결국 J씨는 공항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J씨가 겪었던 공항발작은 뇌의 불안증을 주관하는 신경의 중추에서 화학적 불균형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일

명했다. 또 공항발작이 일어난 것이 J씨가 정신적으로 심약하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어떤 일을 실패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안심시켰다. 일정기간동안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후 이제 J씨는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기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만다라의 모습처럼 을유년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Table listing various Buddhist sects and their leaders: 정각사 (Jeonggaksa), 덕화사 (Deokhwasa), 관음사 (Gwanimsa), 단향사 (Danhyangsa), 밀행사 (Milheungsa), 법성사 (Beopseungsa), 성화사 (Seonghwasa), 실보사 (Silbosa), 운천사 (Ungyonsa), 일상사 (Ilshangsa), 자석사 (Jaseoksa), 화음사 (Hwaeumsa), 삼밀사 (Sammilsa). Each entry includes the name, the leader's name and title, and a phone number.

부산 · 경남교구 일동

풍경소리

밤늦게 깬 손톱

개미 몇 마리가 방안을 소리도 없이 기어갑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어쩔 줄 몰라 그들이 가는대로 그냥 듣니다. 그 사이 개미가 집안에 들면 살림이 인다는 엄마의 말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왔던 길을 잊지 않고 귀가하는 개미들 개미의 집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가족사도 내 집처럼 슬슬할까 찬밥을 나눠 먹으며 사랑을 할까 크고 긴 울음을 삼키며 아이들이 태어날까 저녁 늦게 손톱을 깎으며 이런 부질없는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손발톱을 깎으면 복이 나간다는 나의 가계가 나에게 가르쳐 준 술한 금기들을 간신히 대물림 해 봅니다.

- 김창균/시인

우리절 노스님

우리절 노스님 작년 꼭 이맘 때 낙엽지는 가을날 떠나셨다 하시더니 어젯밤 낙엽지는 소리 온천지에 가득하더니만 그 시간 맞춰 굴러든 염주 상경위에 올려놓고 열반에 드시었네 삶이 그리도 두려웠을까 생전에 신세진 사람 일일이 찾아 밟고 불전에 하직인사 마치시고 절망 속 깊이 간직했던 무자(無字) 화두(話頭) 되 버이며 열반에 드시었네

- 최지원/시인

불위의 시인

침침한 못물 위로 함초롬히 등불 권 연(蓮)들이 드문드문 서 있다.

바람에 일그러진 산이 정수리 처박고 있는 물 아래, 고요한....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었다. 못물 흐러질수록 제 안의 길 희미해져 사천왕상의 눈을 켜 울라가고 채찍 우레와 번쩍이는 칼날 흥흥한 세월 속으로 이따금 비파소리가 울렸다. 추억의 짐다리 끊어진 데에서부터 첫걸음을 다시 내디뎌야 하리 언덕을 오르고 사막을 가로질러 바로 저기, 너무 작아 안이 없고 너무 커서 밖도 없는 연분홍 짙 한 채.

- 김미지/시인

벽은 무늬를 가지고 있다.

벽은 보이지 않는 그물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선을 감추어 놓은 흠집보다 작은 귀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녹음해 두었다가 언젠간 발설할 것만 같다.

벽속에는 거울이 들어 있다. 외출에서 돌아와 화장 지우면 시간의 그림들이 어른거린다. 그 입체화면속으로 내 마음도 따라 들어가 저 편이 기억까지 되비춘다. 이등식 점포가 되기도 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한 평 두 평 그늘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위를 올려다 보면 끝없이 열려 있고 그 아래서 나는 깜빡인다.

누군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가까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벽 허물어지면서 속에 있는 말들을 토해 낸다.

- 문수영/시인 (자료제공 : 유심)

이달의 명상

네가지 얻을 수 없는 일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일이 네가지 있으니 어떤 것이 네가지인가? 첫째는 나이가 어찌 얼굴빛이 예쁘고 머리가 검고 이가 희고 몸매가 빛나고 기력이 건강하고 다니고 멈출 적에 마음대로 다니고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면 못사람이 우리러 보아 모두가 공경하였건만 하루 아침에 홀연히 늙으면 머리가 희고 이가 빠지고 얼굴은 푸그러지고 가죽은 늘어지고 몸이 무거워 지팡이를 짚고 숨이 가빠서 신음하더니 항상 젊고 늙음에 이르지 않고저 하여도 그 일을 얻을 수 없다. 둘째는 나는 늙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다가 홀연히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며 몸이 아파서 때맞는 것과 같고 앉고 서는 데 남의 힘을 빌리며 더러운 것이 저절로 흘러나오면 그 위에 그냥 누운 채 온갖 고통은 비유할 수 없으니 비록 이것을 면하여 항상 병없이 지내하고자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셋째는 장수를 얻어서 한없이 세상을 살고자 하나 병을 얻어 죽는 것이다. 목숨이 짧은 데도 오래 살지 못할까 염려하니 수명이 적고 근심만 많다. 덧없음을 살피지 못하여 다섯 가지 즐거움을 마음

대로 누리고 마음과 뜻을 방일하고 열 가지 악업을 짓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비방하며, 하늘을 호통하고 걸으면서 세상 영화를 사모한다. 날 때에 온 곳과 죽을 때에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마음은 하늘과 땅에 두고서 내 것이라고 말한다. 넷째는 부모, 형제, 애인, 부귀, 영화 등을 지니고 누리며 교만하고 방자하고 업신여기며 자기가 가장 높으면서 남을 경멸하고 행동거지가 시기와 법도에 맞지 않고 앞뒤를 살피지 않는다. 그러다가 홀연히 목은 업이 이르면 짧은 물에 눈이 녹는 것과 같으리라. 비로소 마음에 두려움을 품어 환난에서 구제받기를 바라지만 어찌 그 소원을 이루겠는가. 부르짖으며 목숨이 끊어지면 혼신만이 외로이 떠나고 부모와 형제, 처자, 벗, 권속이며 재물과 명예들은 모두 흩어져서 별처럼 달아나리라.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일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옛날부터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이래 이러한 괴로운 네 가지 환난을 면하지 못하니 이 네 가지 괴로움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만일 이러한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몸을 나타내어 못 중생을 교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편집자 주>

월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L 밀교 ~반야심경편 제 36화~

글:그림/정수일

아주 먼 옛날... "각화정자재왕"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인도의 어느 바라문 가정에 한 소녀가 있었다.

어머니, 제발 사된 믿음을 버리고 부처님법을 믿으세요.

부처님 같은 건 관심 없어. 나중에 시간 나면 생각해 볼게. 헉! 갑자기 몸이...

아이고... 죽기 바쁘구나.

어머니는 분명히 무간지옥에 떨어지셨을 거야.

내 간절한 기도로써 꼭 어머니를 천상으로 제도해 드릴 거야.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어머니! 여기가 어디지? 제 주 앞 바다 갈진 않은데... 헉! 저 괴물들은 뭐야?

나는 "무독귀왕"이라고 하오. 여기는 기도면 다 되리의 지옥으로 가는 바다입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제 어머니인 "열제리라" 부인을 지옥에서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무독귀왕님 도와 주십시오.

흠... "열제리라" 부인이라... 오! 여기있군. 축하하오. "열제리라" 부인은 3일전에 벌써 그대의 간절한 기도공덕으로 인하여 많은 죄인들과 함께 천상으로 태어났오.

어머니! 어느새 또 집에 와있네?

오오... 부처님 감사 합니다.

"각화정자재왕" 부처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 앞에서 사원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저는 미래겁이 다 하도록 죄고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케 하겠습니다.

고, 집, 멀, 도 란 불교의 근본진리이며 사정제, 또는 사제라고도 하지오. 여기서 제(諦)의 의미는 불변하는 여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고제, 집제, 멀제, 도제를 설명하자면...

네. 네. 네. 네.

아이고, 갑자기 머리가...

이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며 범어로는 "크시타가르바 (ksitigarbha)" 이고 지지(持地), 묘당(妙幢), 무번심(無邊心) 등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얘기 끝났으니 무고집멸도 편으로 진도 나가볼까요?

정말요?

정수일 홈페이지 <http://home.paran.com/octagonp>

만다라의 모습처럼 그리워집니다. 진언의 세계에는 모든것이 있습니다.

<p><b>수인사</b></p> <p>주교: 정사. 지공 전수. 지희심 ☎ (054)247-7613</p>	<p><b>제석사</b></p> <p>주교: 전수. 법상인 ☎ (053)743-9812</p>	<p><b>전화사</b></p> <p>주교: 전수. 정원심 ☎ (054)761-2466</p>	<p><b>개천사</b></p> <p>주교: 정사. 지광 전수. 수심정 ☎ (053)425-7910</p>	<p><b>국광사</b></p> <p>주교: 정사. 우승 전수. 묘섭계 ☎ (054)772-8776</p>
<p><b>단음사</b></p> <p>주교: 전수. 묘심해 ☎ (054)333-0526</p>	<p><b>선립사</b></p> <p>주교: 정사. 보원 전수. 심지장 ☎ (054)261-0310</p>	<p><b>수계사</b></p> <p>주교: 전수. 안주화 ☎ (054)745-5207</p>	<p><b>승천사</b></p> <p>기로스승. 불명각 ☎ (054)746-7434</p>	<p><b>진언공덕 가득하시길</b></p> <p>대구·경북교구 신정회</p>

대구·경북교구 일동

# 지혜의 샘

불교총지종 우승 통리원장께서 12월 20일부터 1월 16일까지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낭송하시는 경전내용입니다. 우승 통리원장께서 낭송하시는 지혜의 샘을 들으시고 감로수를 마시듯 해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2004년 12월 20일 ~ 12월 26일 오후 8시59분

지극정성을 다함으로 구업(口業)을 제어하고, 자애로써 몸의 사나움을 없애고, 지혜로써 뜻의 어리석음을 행복 받으시라. 『법구비유경』 상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름내 땀 흘린 자에게 추수할 가을이 있듯이, 스스로를 잘 다스려 지는 선업은 행복을 추수하는 업연의 씨앗이 됩니다. 정성스러운 말은 입이 짓는 선업이요, 자애로운 표정과 태도는 몸이 짓는 선업입니다. 밝은 지혜는 우리 생각과 뜻을 다루는 힘이 됩니다. 정성과 자비와 지혜로, 말과 행동과 뜻을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고, 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2004년 12월 27일 ~ 2005년 1월 2일 오후 4시59분

사람은 늘 눈에 속고, 귀에 속고, 코에 속고, 입에 속고, 촉각에 속고 산다. 다섯 감각기관은 모두 마음에 속해 있으니,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은 마음이니라.

『중야합경』 제46권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이 볼 수 있는 가시영역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귀가 들을 수 있는 음의 영역 역시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본다 듣는다 하지만, 실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인다는 내 생각이고 마음장난이지요. 실상은 알음알이를 놓을 때 보입니다. 판단과 생각을 놓아야 보입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그냥 느껴 봅시다. 마음을 쉬면 가슴이 열립니다. 이때 관계 속에 일어나는 환희와 감동이 있지요. 감동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2005년 1월 3일 ~ 1월 9일 오전 11시4분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보시,지계,학문과 다문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직 진실한 말 한가지 뒤는 것만으로도 한없는 복을 얻게 되리라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보시를 잘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배움이 많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진실로 잘하는 말은 말을 아끼는 것이고, 조심하는 것이고, 거칠지 않게, 때에 맞춰 가려 하는 것입니다. 내 한마디 말로 상대는 극락과 지옥을 오고 가지요. 바로 지금..진실한 말 한마디로, 세상이 변하는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0일 ~ 1월 16일 오후 8시59분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다.

『법구경』 안령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서 얻는 것보다는 감사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재물이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햇볕이 고맙고, 걸고 일하는 건장이 있어 고맙습니다. 서로 만나 웃고 얘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얻지 못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니다. 주어진 삶을 당연하게, 무감각하게 사는 것은 교만이고 태만이고 무지입니다. 삶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 속에 살지 않는 것이, 가난이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 정보 다이제스트

### 청국장 고혈압 환자에 효과

청국장에 들어있는 펩타이드와 항산화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서대학교 자연과학부 김한복 교수팀은 최근 20~30대 고혈압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청국장의 발효된 콩을 먹게 한 후 혈압을 측정해 결과 복용 전 대비 수축혈압이 평균 14mmHg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청국장에 쓰이는 발효된 콩을 가루로 만들어 피실험자에게 20g씩 복용토록 하고 2시간이 지난 후 세 번씩 혈압을 측정, 평균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결과 피실험군의 수축혈압은 평균 151mmHg에서 137mmHg으로, 이완혈압은 평균 118mmHg에서 115mmHg으로 각각 하락했다.

혈압 강하 상태는 콩 섭취 후 10시간 가량 지속되다 차차 원래 수치로 돌아왔다. 혈압이 120·80mmHg 수준으로 정상 수치를 가진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설정해 같은 내용의 실험을 한 결과 혈압 수치에 유의미한 정도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청국장의 발효된 콩에 들어 있는 펩타이드(아미노산 결합체)가 혈압 상승 효소인 ACE(안지오텐신 전환효소)의 발현을 억제하며 항산화물질도 혈관의 손상을 막아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혈압강화하는 고혈압 치료제에 비해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 없이 음식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청국장을 끓일 때 소금은 되도록 적게 넣는 것이 청국장 콩의 혈압 강하 효과를 높인다."고 밝혔다.

### "조기영아교육 뇌발달"에 부정적 영향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영아교육은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남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유아교육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영아교육을 시키면 스트레스로 인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를 담당하는 뇌 발달이 이뤄지는 아동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4살짜리 유아는 모국어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영어발음도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한 반면, 7세 아동은 발음도 좋고 기억력이나 응용력이 뛰어나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유아기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아동들은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지, 언어 능력 및 사회성 저하 등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 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국가 중 최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경제협력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을 빨리 활성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합개발원의 'OECD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 의료비 총액은 29조4천684억원이며, 이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6조5천283억원으로 56.0%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은 치료나 진료를 한 뒤 공적인 건강보험기구나 민영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을 빼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다. OECD가 작년과 비교해 '보건 의료비 지출 재원 구성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본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52%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료부족으로 통계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보합개발원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최고인 셈이다. 멕시코에 이어 스위스 33%, 스페인 24%, 이탈리아 23%, 헝가리 21%, 핀란드 20% 등이었으며, 본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8%, 네델란드와 체코가 9%, 프랑스 10%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률이 높은 것은 공적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44%대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 공적보험을 보완해 주는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합개발원은 분석했다.

우 교수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공적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44%대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 공적보험을 보완해 주는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합개발원은 분석했다."

평하는 비율이 44%대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 공적보험을 보완해 주는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합개발원은 분석했다.

### 인간평균수명 '120세' 시대온다

생명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2020년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평균수명은 120세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지에 따르면 호주 정부 생명공학연구소의 크레이그 매코믹 소장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04년 호주 생명공학회의에서 새로운 맞춤 의약품과 유전자 조작으로 2020년 출생자들부터는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40년 정도 늘어나 120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때까지는 생명위험요인들을 태아 때 진단해 출생과 동시에 치료 가능하게 되며 당뇨와 비만도 발병 전에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는 걸 뜻하며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질병 걱정보다는 몇 살에 양로원에 갈 것인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전자 조작으로 밤에 빛을 받는 개, 초록색 고양이를 만드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 뭘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통해 '놀라운 신세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족과 오순도순" 이 행복 초등학생 45% 첫손꼽아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어린이들은 가족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 622명에게 "행복한 삶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족과 함께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80(45%)으로 가장 많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 100명(15%)으로 뒤를 이었고, '돈 많이 버는 것'이라는 대답은 33명 정도였다. 건강한 생활(50

명), 봉사하는 삶(24명), 사회적 성공(26명) 등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초등학생들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족(215명), 건강(153명), 사랑(99명), 돈(16명), 우정(28명), 명예(23명)등을 꼽았다.

### 평양서도 인터넷 PC방 인기

평양시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PC방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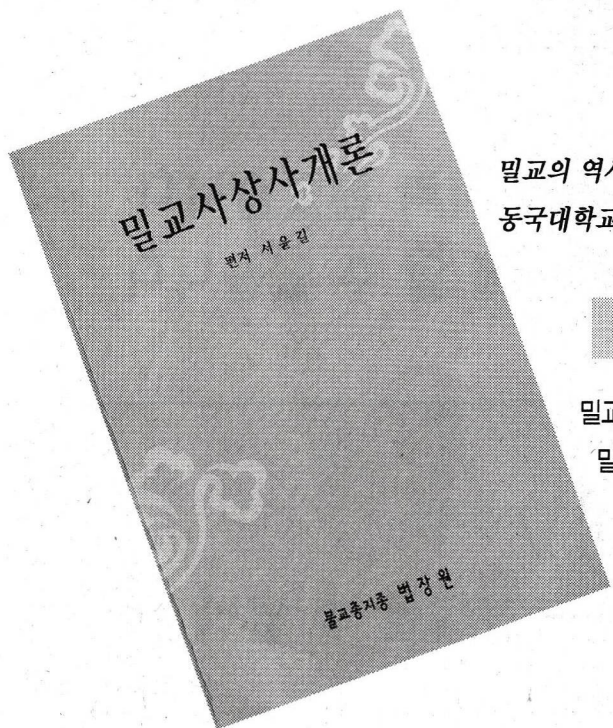
조선신보 최근호에 "2000년 10월 북한에서는 빛섬유(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전국 통신망이 완성됐다"면서 "평양시내에는 최근 '컴퓨터 이용봉사소'이라 불리는 시설이 젊은 세대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에는 6~7개의 봉사소가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PC방'으로 부른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만경대구역이 지하철 광복역 앞에 자리잡은 첨단기술봉사소(소장 강춘일)직영 PC방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100대의 컴퓨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신문은 PC방 이용자들이 100Mbps 속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우편(e-메일), 실시간 대화(채팅), 망쟁(온라인 게임), 홈페이지 및 동영상 열람 등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 봉사소는 "일반 가정에서 국가 컴퓨터망에 접속해 각종 봉사를 이용하려면 아직도 접속환경, 통신속도 등 제한되는 점이 많다."며 "봉사소 이용자들이 오락을 즐기는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PC방 이용료는 시간당 북한돈 400원(3달러)으로, 일반 제조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월급이 2,500~3,000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신문은 비싼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주된 이용자인 청년학생들이 방과 후 PC방으로 하나 둘 모여들어 영입이 끝나는 9시까지 만원을 이룬다."면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어른들도 컴퓨터 습득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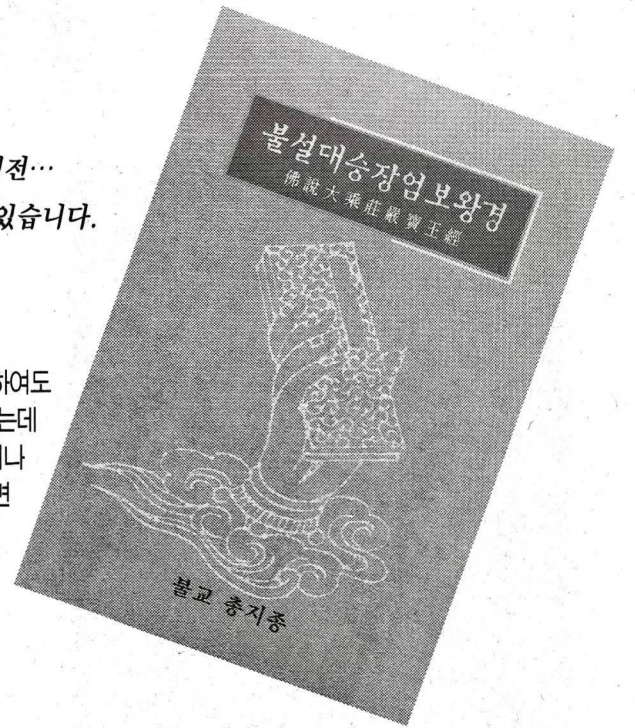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음마니만메춤>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칼럼

# 염불 혹은 다라니



김종인

▲(현) 총지중 법장원 연구원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에서 불교 연구 철학 석사 (1994)  
▲스톰니부록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한국 불교에는 이론과 현실이 전혀 상반된 경우들이 많은데 염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종파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모든 한국 불교 사찰에서 염불이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불은 일반 불교 신도들의 신행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인들이 염불 행위는 일종의 천박한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염불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가 널리 퍼져 있다 보니 실제로는 염불을 하면서도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없다. 승려이건 신도이건 법회에 참석하면 의례 절차에 따라 염불을 하지만 그저 관습적으로 할 따름이지 거기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중이 염불하는 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도 이런 사정만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실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렇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염불의 역사는 사실상 대승 불교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실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염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올바른 이론정립을 하여 염불행위를 통해서 소기의 종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염불은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는 행위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이미 열반에 드신 부처님을 마음속으로나마 그려봄으로써 부처님의 사상과 실천에 가까워지고 싶은 염원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특별히 주술적이거나 신비적인 것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공자가 꿈에 주공을 만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널리 행해지고 있는 염불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염불은 마음속에서 그리려는 행위가 아니라 밀교에서 행하는 다라니의 염송과 같이 소리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밀교의 다라니 염송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의례에서의 기능을 염불행위가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염불과 염송은 내면지향의 명상의 행위가 아니라 외면지향의 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다.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행위이다.

결국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염불 혹은 염송의 적극적인 의미를 살리는 것 역시 바로 염송의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염불이나 염송을 통해서 의례참가자들이 동적이고 적극적인 집단적인 신앙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불이나 염송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염불이나 염송이 소극적인 응원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염불이나 염송의 효능은 거기에 사용되는 명호나 다라니의 언어적 의미나 그 의미와 연결된 심리적 힘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라니나 명호를 하나의 말로서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글을 읽듯이, 혹은 녹음기 되풀이하듯이 다라니나 명호를 외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염불과 염송이 아니다. 그런 염불과 염송은 때때로 지저분하고 다를 것이 없다.

염불은 입과 혀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심층부로부터 나오는 울림이 되어야 한다. 염불은 우리 몸과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원초의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을 함께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명호, 하나의 다라니를 외 때마다 내 몸과 마음속의 하나의 맑은 기운, 하나의 탁한 기운이 명호와 함께, 다라니와 함께 울려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 염불과 염송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행위인 만큼 통일된 울림이어야 한다. 이 절에서 하는 염불과 염송의 고저와 박자와 리듬이 저절에서 하는 것과 다르고, 오늘 하는 염불과 염송의 음이 내일 하는 염불과 염송의 음과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같은 고저와 장단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염불과 염송에 통일된 음악적 질서가 부여되어야 한다.

염불과 염송은 장엄한 불법의 표현이어야 한다. 염불과 염송을 통해 울려 나오기 전에는 우리들 각자의 몸과 마음속에서 있던 선하고 악한 기운이었지만 그것이 명호와 다라니와 함께 허공중에 울려 퍼질 때는 우주의 통일된 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 나와 타자가 구

분되지 않는 법신의 울림이 장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즘은 도심의 많은 절에서는 법회 중에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 찬불가라는 것을 들어 보면 대개는 그 음과 가사가 법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안타깝게도 찬불가가 기독교의 찬송가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장점으로 배워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태도이다.

그러나 다른 이의 것을 모방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자신에게도 적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쉽게도 도심의 절에서 도입하고 있는 찬불가는 이러한 반성을 생략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법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찬불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세월 속에서 불교 의례와 융합되어 온 염불과 염송의 적극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이를 활용하면 찬불가를 부르는 것보다 백배 천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설법문안

# 부처님의 묘법대로 닦으면 대도를 이룬다

애석하게도 부처님 가신 후의 말세에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묘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묘법대로 닦아 나가면 누구나 생사의 업 바다에서 벗어나 대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성하라. 둘째는 애욕을 버려라, 셋째는 티끌세상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아 번뇌가 없는 무루의 묘법을 배워라

그렇다면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마음자리를 내 썩고 돈과 명예와 색을 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탐욕 때문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공연히 드러누워 있다가 단지 싫다는 감정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은 수많은 죄업을 알게 모르게 지으며 환경생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지은 바 죄업을 녹여 없애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오직 스스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면 모든 업장은 구름 걷히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성입니다. 이렇게 반성한 다음, 티끌세상을 벗어나는 무루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루(無漏)의 '루(漏)'는 번뇌를 뜻합니다.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 번뇌망상을 좇아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루(有漏)의 법이요 세속의 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삼매를 이루게 되면 저절로 무루가 되고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곧 모든 집착과 분별심, 아상으로 가득 찬 마음속의 번뇌망상을 던져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자비를 베풀고 선정을 하여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이 무루의 묘법인 것입니다.

무루의 묘법을 배운다면 몸이 물은 연음과 같고 법이 산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법은 산에 있어야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스런 호랑이라도 동물원의 철장 속에 갇혀 있으면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대기를 툭툭 때려도 으르렁거리지만 힘이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가 있어야 할 곳은 역시 산인 것입니다. 또한 용도 물을 얻

어야 마음대로 조화를 부릴 수 있습니다.

산에 있는 호랑이의 자재로움과 물을 얻은 용의 묘한 조화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듯이, 무루의 묘법을 닦으면 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법과 수승한 이치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것이 미묘하고 수승한 법인가? 하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 이것이 묘한 법입니다.

이것을 바람에 비유해 보면, 바람은 안보이니까

"참으로 공한 가운데 묘한 것이 존재" 시작과 끝이 있는 세속의 법은 모두가 무상하고 허전한 뒷맛을 남깁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다함이 있습니다. 큰 것 잔치를 할 때는 재미가 좋지만 다 보고 나면 허전해 집니다. 그러나 진공묘유의 법은 썩도 썩도 비어 있어서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 무루의 묘법은 결코 새어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하고 가득하고 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되어 있고, 그것을 달리 선연락이라 합니다. 선의 기쁨, 삼매의 즐거움, 그 수승하고 묘한 도리는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연락을 이를 그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공묘유의 마음자리, 무루의 묘법을 증득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을 탓하며 물러서는 안됩니다.

경전에 "사람에게는 예와 지금이 있으나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다. 비록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

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아무리 말세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무엇이 해로우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후말세(佛後末世), 불전불후(佛前佛後)'를 핑계삼고 시대를 탓하는 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옛 사람과 지금 사람이 있지만 법에는 먼 법과 가까운 법이 없습니다. 사람중에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성함과 쇠함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공과 쇠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은 오래가지 않고 바른 법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부처님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며, 현재의 이익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세속법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이러한 분별심으로 가득찬 마음을 가진 채 정진은 하지 않은 채 성불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찌 시대와 흥망 성쇠를 핑계삼아도 닦기를 주저할 것입니까?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주어진 이때 힘써 닦으면, 닦기 어려운 행위라도 닦아 익힌 힘이 있기 때문에 차츰 어렵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옛날 도를 이룬 분들 중, 처음에 범부 아니었던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면 좋은 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니, 수행하는 그날 그날이 모두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시대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과 밝음을 살피서 적합한 수행법을 택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자리를 밝혀갈 뿐, 비겁하거나 나약해져서는 안됩니다. <편집자 주>

참으로 공한 가운데 묘한 것이 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 좋은 날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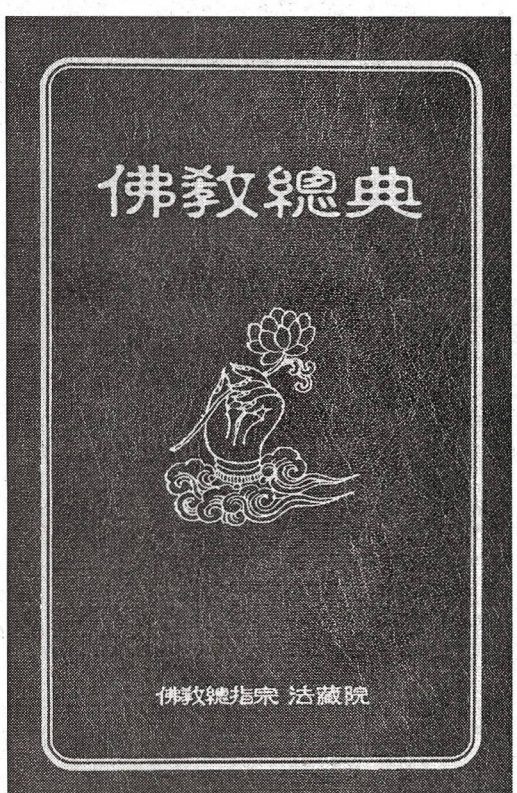
#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 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중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교계소식 "세계에 발돋움할 웅대한 종단을"

## 총지종 32주기 창교절행사



부산 정각사에서 총지종이 세계적인 종단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하며 창종 32주년 창교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지종은 창종 32주기 창교절 행사를 지난 12월 24일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하였다.

특히 이번 창교절은 종단의 숙원사업인 종조 "원정기념관"을 개관하여 종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였고, 보살들에게 수명관정수계를 수지하는 수명관정수계법회를 봉행하여

그 의미가 크다. 창교절을 맞이하여 효강 종령 예하는 "창종 32주년을 맞이하여 흔들림없는 종지로 오늘의 우리 총지종이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세상의 변화와 개혁신상을 교화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린만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흔적에 머물러서는 발전이란 까마득한 남의 일 같게만 여겨질 것이다. 우리 종단이 창종 당시의 불꽃같은 교회의 열의를 살리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종단의 교세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부득불 새로운 교화방편의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원형태와 불단의 양식에 변화, 기본이케인 준제법을 중심으로 모든 의례와 의식에 장중함을 더하여 신심을 고취시키는 것과 법의와 법구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불합리한 법령과 법규를 개정하여 문호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대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에 발돋움할 웅대한 종단을 만들어 세계민방에 밀교의 수승한 법을 펼치려고 하신 종조의 유지를 받들고 억만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히며 변화와 개혁으로 웅대한 종단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한편 일선사원에서는 창교절 행사를 회향일로 맞추어 자신의 허물불공을 통해 자신을 바로보고 참회와 반성하는 참다운 수행자의 모습을 다짐하는 49일 불공을 하였다.

무원 집행부가 요청한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불교위성방송(BSB) 건립 등 16개 정책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태고종은 종단산하 (재)한국불교 태고원(이사장 일우)을 통해 지난 9월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승인 받은 바 있다. 태고원은 불교관련 정보, 교리, 교양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등 불교전문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태고종은 방송사업을 종단 차원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번 총회 승인을 통해 종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태고종의 방송사업 진출을 계기로 불교계 영상포교 영역을 넓히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교육, 연구, 체험, 문화시설로 244억 투입

대한불교 조계종은 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를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일대에 2006년까지 자부담 122억, 국고 122억 총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평에 4동의 건물 4천여평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교육 및 연수시설 △국제간 화선센터 등 전통불교 수련시설 △연구시설 △공공연설 △불교문화 정보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이곳에서는 불교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교

육과 연수개발, 무형의 유산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하고, 불교문화 정보화 사업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각종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자립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각종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운영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아함경 이야기

### 두 가지 승리

부처님께서 왕사성 교외에 있는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 때에는 많은 비구들이 이미 출가해 있었고 마가다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법문을 듣고 출가했습니다.

거기에 바라문 한 사람이 죽림정사에 와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출가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라문은 인도의 최고 계급으로서 인도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바라문 종족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가 상당히 분했던 모양입니다.

이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서 한참 욕을 하다가 제풀에 잠잠해졌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아, 그대의 집에도 가끔 손님이 방문할 것이다."  
"물론이다. 고타마여."  
"그러면 그대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물론이다. 고타마여."  
"바라문아, 그때 그 손님이 음식을 듣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야 나의 것이 되겠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아, 그대는 지금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음식은 그대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바라문아, 주인이 대접했는데도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대의 욕설을 나는 받지 않고 그대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런 계승을 읊으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 되갚음은 어리석은 일이다. 화내는 자에게 화내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승리를 얻게 된다.

타인의 성냄을 알아 자신을 정념으로 가라앉히는 자는 자신에게도 승리하고 남에게도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이르자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 감복하고 출가해서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면 일을 더 그르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해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가 화를 낼 때는 덩달아서 화를 내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화를 내는 것일까를 살펴봅니다. 부처님께서 정념으로 자신을 가라앉히라고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고 오해가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미음은 미음으로써 풀어지지 않고 미음을 버릴 때에만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남이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도 이기는 것이 되고 자신에게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 미국과 이라크가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원인이 누구한테 있던 저런 식의 싸움으로는 질대로 관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야 힘 쪽이 이기겠지나 둘 다 상처만 안게 됩니다. 승자가 패자도 없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버리고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두 가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어려운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늘 쉬운 말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불교의 수행이 꼭 좌선하고 앉았거나 염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마음을 잘 살피며 화가 날 때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몇 십 년을 수행했다고 해도 자신 좀 상한다고 말할 때면 그게 수행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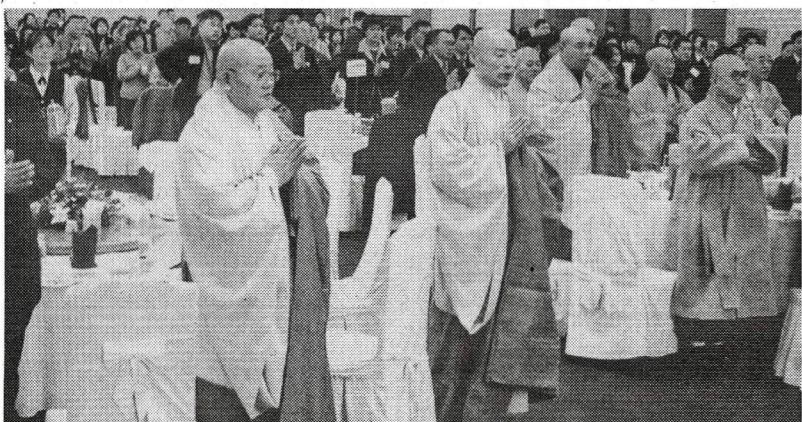
그것보다는 남이 화낼 때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의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가장 잘 닦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에게도 승리하고 남에게도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종석(화평)정사/법정연구원)

### "선진문화 시민복지사회 건설"

### 전국 불교사회복지 대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 법장)이 불교계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올 해 우수 봉사단체 및 봉사자들을 치하하기 위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12월 15일 하림각 대연회실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박진 한나라당 의원, 문창진 보건



복지부 정책실장 등 5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1부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 2부 기념법회, 3부 만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세미나에서 경희대 강운구 교수가 "정부정책변화에 따른 종교사회 복지환경"에 대해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장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대회에서 법장 스님은 "불교 사회복지활동은 이 땅에 생명있는 모든 중생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되는 불국정토를 실현시키는 일이며 21세기 선진문화시민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선재종자원 원장 시산스님,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 등 4명이 수상했으며,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현고스님의 11명은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 불교방송 총지종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승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 불교방송 강좌 안내

▷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 방송시간

오전 6시 5분 ~ 6시 25분

오후 9시 5분 ~ 9시 25분(재방)

▷ 강사 : 화령 정사

▷ 방송기간

총기 33년 10월 11일부터 3개월간

※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청주 FM 96.7MHz  
춘천 FM 100.1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아제아제 바라아제

국회 앞 단식농성을 생각하며...

벌써 한 해를 갈무리해야하는 때가되었다. 그동안 지나치게 포근한 날씨 때문에 겨울을 실감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지금이 겨울임을 새삼 확신 시켜주기라도 하듯 며칠 사이 기온이 푹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라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이 추운날씨에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진다. 단에서 말고 있는 소위 상일년 중 가장 일감이 많은 요즘은 내 몸 하나를 추스르기도 힘들 지경이어서 하루라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저 막연한 의무감으로 마음속을 때들 뿐이다. 편지 못한 잠자리는 악몽의 연속이다. 꿈속에서 나는 흐릿한 대상을 향해 소리 지른다. '고문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선 안돼! 이 세상에서 생명존중보다 더 소중한 명분은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상대는 말이 없다. 그러다가 어둠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를 붙잡

차갑게만 느껴진다. 그렇다고 달아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삶으로부터 궁극적인 도피란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견뎌내야만 한다. 이것이 요즘 내가 생각하는 삶의 현주소다. 그래서 인간세상 속에서는 절대적 행복을 구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구절절이 가슴을 파고 든다. 우리자신을 이루고 있는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느껴보았던 성인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음을 비로소 얼핏 깨닫는다.

한 사회의 제도와 법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서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생각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자들을 향한 분노가 나의 결백을 보증이라도 하듯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혐오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는 제도와 법으로는 답이낼 수 없는 엄청난 공백이 있음을 안다. 짧은

종오심을 다스리는 데는 자애심을, 들뜨고 흥분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평정한 마음을 개발하여 탐욕과 분노라는 강을 건너야한다

아 두려고 애써보지만 사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남편이 나를 흔들며 깨우고 그래서 야 현실로 돌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실감나는 게 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정한 크기의 무게만을 짊어지고 가뿐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애초에 혼자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 올 수 없었듯이 세상 어디에도 제멋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은 없다. 운명은 늘 이런저런 바늘로 자유의 날개를 묶어매고 만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과 마주하는 것은 분노와 혼돈 속으로 우리를 추락시킨다. 이 땅이 독재의 마법에 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종오심을 쓰디쓴 소주로 겨우 달래가며 그래도 역사의 바퀴를 구르려는 말을 진통제처럼 되뇌이던 청춘시절을 기억해본다. 이제, 그때의 믿음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십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우리사회는 분명히 독재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적인 정치질서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의 수준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나의 삶이 행복해졌는지를 살펴보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나의 욕망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현실은 더디기만 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 다른 사회문제와 인간문제들이 끊임없이 줄을 이어 생겨났다. 오히려 마음이 맑은 날 보다는 흐린 날이 많다. 실존의 무게감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마음을 짓누른다. 희망은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은

시절 그토록 열망했던 사회적 정의가 거대한 존재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조그만 충격에도 부서져 내리는 옥구슬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바라는 정의의 모습을 구현하고자함이 얼마나 조급한 꿈에 불과한지도 안다. 그렇다고 고귀한 가치의 추구를 포기하고자함이 아니다. 가치의 끈을 놓는 순간 정신적인 진화는 중단되고 우리는 인간의 형상을 한 축생의 세계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 분노와 증오 대신 담담하게 인내하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 나의 가치를 주장하되 스스로 분노의 고통을 증폭시키지는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사회적 부정의의 개선을 요구하되 동시에 내 발 밑에 흐르는 무지와 욕망과 편협함의 문제도 보고자 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개발해야 할 가장 고귀한 심성으로 사무람심을 가르치셨다. 종오심을 다스리는 데는 자애심을, 인색함을 다스리는 데는 동정심을, 시기과 질투를 다스리는 데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들뜨고 흥분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평정한 마음을 개발하여 탐욕과 분노라는 강을 건너야한다는 처방전을 주신 것이다. 나의 형편없는 내용으로는 모두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지만 깨달음으로라도 조금씩 개발해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른 묘책이 없어 보인다.

<김선미/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총무국장>

총지종 연말 불우이웃돕기 동해중 장학금전달

괴산 경로원, 삼동소년촌, 불우교도 위문



총지종은 연말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충북 괴산 양로원과 지역의 불우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특히 서울경인교구는 서울 삼암동에 위치한 고아원 삼동소년촌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우리 주변의 불우한 가정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불우한 교도들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고아원을 방문한 한 교도는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속에 환희심이 절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 함께한다는 것, 어려운 사람

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준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

천태종 삼릉사 종합불교회관 개관 서울동부 포교거점 마련

천태종의 서울 동부지역 포교도량인 서울 망우동 삼릉사 종합불교회관이 완공돼 지난 12월 8일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중앙종의회 의장 덕산스님, 중앙총회 부회장 태우스님, 문병권 중앙구청장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350평 규모의 종합불교회관 본불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종합불교회관은 4층에 대보전을 비롯해 3층에 법화상대당, 2층에 소법당, 신행단체 사무실, 요사, 1층에 사무실과 대종식당을 갖추고 지역불자와 시민들에게 불교를 포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의 증언으로 봉불. 점안에 이어 제막식, 낙성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천태종의 서울 동부지역의 포교거점이 될 삼릉사 종합불교회관 불사에 진력해 온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신도들이 삼릉사를 천태의 법광을 밝히는 도량으로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삼릉사 주지 용안스님은 "불교회관은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이며 불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각종 한·일 밀교문화교류 일본 교야산대학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밀교행법 중의 "금강계 삼십칠존"을 주제로 하는 한일국제학술대회가 12월 14일 일본 교야산대에서 개최됐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 종학연구실과 일본 교야산대학 밀교연구소(소장 나마지쇼) 공동주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는 진각종 스승들과 일본 교야산대학 교수, 불교학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교류대회는 혜정 교육원장 "한국밀교와 금강계 삼십칠존", 오치준니 교야산대 문화부장 "일본밀교와 금강계 삼십칠존"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진각종 혜정 교육원장은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은 우리를 일상생활 속에 있으며, 몸과 입과 뜻으로의 활동이 모두 비로자나불의 행위이며, 비로자나불과 제불보살과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인인 "염미니 반메홍"을 염송함으로써 금강계 37존 만다라의 근본상이 들어 있는 자성만다라의 삼십수행을 통해 비로자나불과 합일하는 대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교장에 박수현, 교감에 김남교사 선출

내부승진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진작



교장 박수현



교감 김남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이사장의 강)는 지난 22일 동리원에서 열린 제98차 임시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동해중학교 강경중교장과 후임으로 전임 부장인 박수현(사진, 58

세)교사를 교장으로, 현 교무부장인 김남(사진, 57세)교사를 교감으로 선임했다. 관음학사 이사장인 의 강 총사는 "이번 동해중학교 교장과 교감 선임은 기존에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내부에서 모범적이고 경력이 유능한 인사를 승진하는 형태로 바꾸어 교장과 교감을 선임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동해중학교의 인사에 있어 내부에서 유능한 인사를 승진함으로써 교사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학교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고광명이요, 청산유수라" 조계종 승산 스님 원적



승산 스님

티베트 달라이라 마, 베트 남 승려 티 낮탄, 캄보디아 마하 거사난다와 함께 세계 제4대 생불로 추앙받던 승산당 행원 대중사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5시에 입적하여 12월 4일 예산수덕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다비식을 가졌다. 승산 스님은 세수 77세, 법랍 57세로 임종계를 남기지 않았으나 원적을 앞두고 "큰 스님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어찌 합니까?"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만고광명(萬古光明)이요, 청산유수(靑山流水)니라"는 말씀은 남겼다. 승산스님은 1966년 일본 흥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 흥법원과 국제선원을 개설하며 적극적인 해외포교활동을 전개했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8호선 송파역 2번출구

**가락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8호선 송파역 2번출구

# 총지종 시무, 종무원교육 실시 불교교리, 총지종 수행법 체득



총지종(총리위원장 우승)은 시무5명과 종무원 3명에 대한 1차 교육을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다.

개강식에서 우승 총리위원장은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흘러갑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도 변화되어야 하며 구세대는 신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총지종의 내일을 이끌고 갈 역군들입니다. 종단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여하에 따라 종단은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자 중생구제의 굳은 신념으로 총지종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전에는 총지종의 수행법을 실수하고 오후에는 불교일반교리, 총지종 교의 및 불사의례로 진행되었다.

중앙 교육원 관계자는 "시무는 앞으로 7개월 동안 총지종 스승으로서 교리 및 수행면에서 자질을 갖추고, 다양한 포교방법, 불교와 밀교전반에 대한 이론, 선배

스승들의 교화경험담을 바탕으로 교화일선에 나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무는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론과 실수를 병행함으로써 총지종의 수행법에 대한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수행자로서 하심하는 자세로 생활 하고, 자신의 허물을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종단적으로 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도와 종단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무는 7개월 동안 중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교회의 일선에 나가게 되며, 종무원은 3개월간 교육과 수습 후 정식발령을 받게 된다.

## "찬불가로 부처님 세상을"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불교연합합창단 가입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단장 최재숙)은 12월 8일 불교연합합창단에 가입하게 되어 부처님의 음성으로 불법을 포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불교연합합창단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의 각 종단의 불자들이 구성된 합창단으로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 각종 불교행사에 참석, 찬불가 제작 및 포교 등 부처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불법을 포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교음악을 대표하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총지종 서울경인 교구 합창단이 연합합창단에 가입하여 내년부터 연합합창단 단원들과 연습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최재숙 단장은 "총지종에 들어와 수행하면서 합창단을 구성하여 부처님 아름다운 음성인 찬불가로 불법을 포교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총지종 합창단이 성장하고, 이번에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이 연합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 것은 너무 감개무량하며 이제야 소원을 성취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모든 단원들이 열성적으로 연습하여 부처님 오신날 연희단 공연, 총지종 큰 불사에 참가하여 찬불가를 부르며 실력을 다져 왔다.

### 신행체험 17

## 마음자리를 닦는 불공



김진완(정광행) 보살  
(총지사 교도)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었는지?  
제가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된 때는 1953년 6.25사변 후의 피난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때 옆집에 사는 한 보살이 찾아와 저와 함께 절에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은 산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때문에 멀리까지 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 보살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십리에 마음을 닦는 절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그 보살을 따

▶ 평소 신행하면서 가지고 계시는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거창한 철학보다 항상 주위 사람들이 편안하고 우리 총지종이 화목하며 가정에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 되어 주기를 원하며 항상 깊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 탐·진·치 삼독도 무섭지만 "내가 잘났다"는 아상 또한 얼마나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증득했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아상이 정말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불공하면서 얻은 공덕은?  
불공을 하다보면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불공을 하고 나서 깨쳐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 옛날에는 불법의 계율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파도 절대 약을 먹으면 안되

드시 이루어 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저는 50년 동안을 부처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절 근처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불공하였습니다.

▶ 부산에서 10년동안 불공할 때 자성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니 복잡하기도 하고 절의 행사, 집안의 행사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 이제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다보니 몸도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7시간 정진을 수시로 하고 모든 불사와 불공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몸이 전과 같지 않아 불공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불공도 젊어서 용맹정진하여 복과 지혜를 증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님께서 "소원성취하려면 절대 불공시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 종단에 바라는 점은?  
저는 총지종 창종당시 원정님을 모시고 생활하였습니다. 원정님께서하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정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할 따름입니다.

▶ 또한 우리들과 여러 스승님이 원정님을 모시고 조그만 셋방집으로 다니면서 오로지 총지종 교세발전을 서원하며 용맹정진 하였습니다. 그 불공 공덕으로 지금의 총지종이 있게 된 것입니다.

▶ 모든 법에는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이 주어집니다. 현대 사람들은 정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서원이 성취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침착한 마음으로 고요히 열심히 불공하면 부처님의 지혜는 열리고 모든 일은 성취됩니다.

▶ 지금에 와서 종단의 옛일을 생각하니 옛것에 일 같지만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젊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옛날 사람들이 일궈낸 업적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가지 꼭 부탁 할 말은 어른을 존경하고, 상하가 구분되며 모범적인 종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 끝으로 다시다나했던 금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종령님 건강하시길 축원하며 총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종단의 여러 스승님과 전국 보살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처님의 가지력이 증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남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잘 대접해 주도록 노력해야

라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상도 없고, 스님도 없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보살님(성명자)을 따라 불공을 하다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열심히 불공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진각종시절이었습니다. 왕십리에는 진각종 종주 회당님이 교화하고 계시 때였습니다. 그 후 원정님을 뵈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뵈우는 원정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자상하게 대해주셨습니다.

▶ 그때부터 저는 원정님을 존경하게 되었으며, 원정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같이 수순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정님께서 크나큰 소원을 세우시고 49일 불공을 마치시고 총지종으로 나오신 후 원정님을 따라나와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 스승님들께 전했더니 그 뜻을 받아 주셨습니다. 며칠 후 대구, 경주, 부산에서 몇 분의 보살님들이 서울의 원정님을 만나 뵈고 다녀가셨습니다. 아마 그때 원정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 병원에 못가고 불공을 하여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처음 입교하였을 때 절이 거리가 멀어서 아침 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춰 절에 가다보니 학생들의 발에 밟히고, 넘어지며 전차를 한 시간 넘게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며 절에 갔습니다. 절에서 두 시간 불공을 하고 집에 오면 언제나 길에서 사남매가 옹기종기 엮마를 기다리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부처님께 "절에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부산산신당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생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새벽, 낮, 저녁불공까지 하루에 세 번씩 절에 다니며 열심히 불공을 하였습니다.

▶ 그러한 불공 덕분인지 6남매의 자녀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주고 각자님의 사업도 잘되어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 저는 지극한 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염속하고 실천하면 모든 소원이 반

하였습니. 그 불공 공덕으로 지금의 총지종이 있게 된 것입니다.

▶ 모든 법에는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이 주어집니다. 현대 사람들은 정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서원이 성취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침착한 마음으로 고요히 열심히 불공하면 부처님의 지혜는 열리고 모든 일은 성취됩니다.

▶ 지금에 와서 종단의 옛일을 생각하니 옛것에 일 같지만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젊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옛날 사람들이 일궈낸 업적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가지 꼭 부탁 할 말은 어른을 존경하고, 상하가 구분되며 모범적인 종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 끝으로 다시다나했던 금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종령님 건강하시길 축원하며 총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종단의 여러 스승님과 전국 보살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처님의 가지력이 증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도 한마디**

지난 몇 달간 매스컴에서는 연일 수능시험부정사건, 밀양최소년 성폭행사건 등이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 조사에 의하면 수능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몇 백명이나 된다는 사실과 고도로 첨단화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사회가 그만큼 부정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일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왜 이리 부정이 만연되어 있는가? 그것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양심과 선의는 뒤로한 채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로 광배해 있는 나만 잘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 모든 일에 원인과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 수능부정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책임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사회전반적으로 광배해 있는 부정적인 생각, 양심없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정이 만연된 사회**

▶ 정당화되고,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우리 모두의 책임 일 것이다.

▶ 이러한 사회가 창출되다 보니 많은 젊은 세대들은 사회에 대한 환멸감으로 이만을 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

야 하리라 생각한다.

▶ 또한 종교인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종교인들이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사회의 정의에 서서 신도들이 바른 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행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정화에 앞장서야 하지만 각 종교들은 타 종교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이란 나라에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지...

▶ 부정이 만연된 한국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공업중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의 양심에 부끄럼이 없는 행동을 할 때, 종교인들이 바른 자세로 생활할 때 더해가는 사회, 정의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김근석/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인정 받는 기업 봉사를 아는 기업
------------------------	-----------------------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상 호 존 중    기 술 혁 신    고 객 만 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 (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 사진으로 다시 본 2004년



## 우승 통리원장 취임, 효강 종령 추대로 종단의 종풍을 세우고 내실있는 종단운영, 수명관정수계법회, 원정기념관개관으로 정통성을 확립하고 교세를 확장한 한 해...



### 우승 통리원장 취임

2월 27일 승단총회에서 우승 종사를 제14대 통리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협동하고 화합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하고, 투명한 중무행정, 법집행의 일관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중무행정을 펼칠 것"을 밝혔다.



###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 입적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가 3월 29일 입적하였다. 수성 대종사는 생전에 "종단의 화합과 원정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을 깨달아 지내증을 통한 인과법으로 수행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 제9대 효강 종령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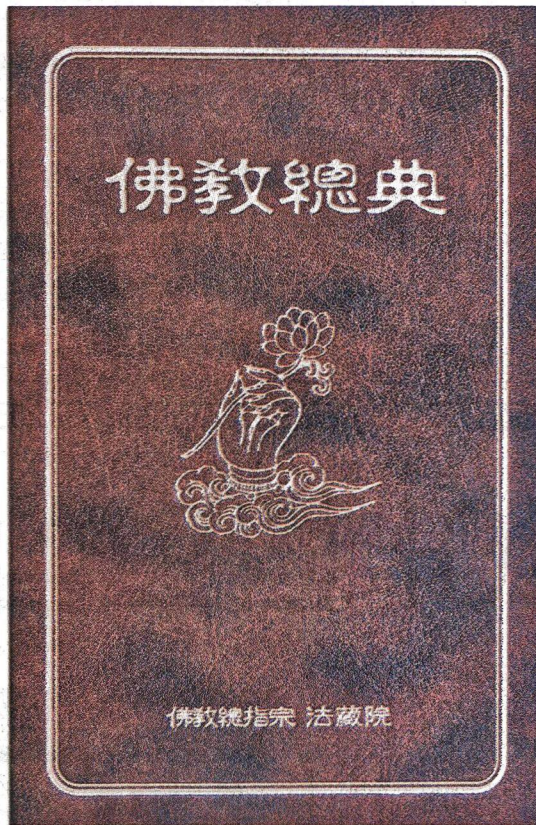
5월 17일 제9대 종령으로 효강 종사를 추대하였다. 효강 종령은 '엄격한 계행과 수행이 근본'이라는 신념을 품고 실천하면서 계행이 엄격한 종단 풍토를 조성하고, 시시불공 처처불공으로 항상 엄수정진하시는 수행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종단의 내실을 기하고 대외에 총지종을 포교하는 데 공헌하였다.



### 중대팔엽원 언등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서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형상화하여 모든 불보살들의 화현을 통한 중생구제를 의미하는 언등을 제작하여 정려상을 수여받았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가 지나고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신년 한 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종단은 우승 통리원장 취임과 효강 종령 추대, 수명관정수계법회, 종조기념관개관, 등 그동안 연기되었던 종단의 대소사를 완만히 치루고 종단의 종풍과 기틀을 바로 잡으며 교세를 확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슬픈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기쁜 일들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교도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 『불교총전』

총지종의 기본경전으로 사용하던 『불교총전』을 현대적 문법에 맞추고, 편집형태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교도들에게는 수행의 지침서로, 불자들에게는 불교입문의 길잡이로서 활용되어 경전으로써의 가치를 높였다.



### 준제결인 장엄등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총지종은 관세음보살의 준제결인을 장엄등으로 제작하였다. 다라니와 결인을 통한 즉신성불에 이르는 밀교적 양식을 형상화하여 관객들로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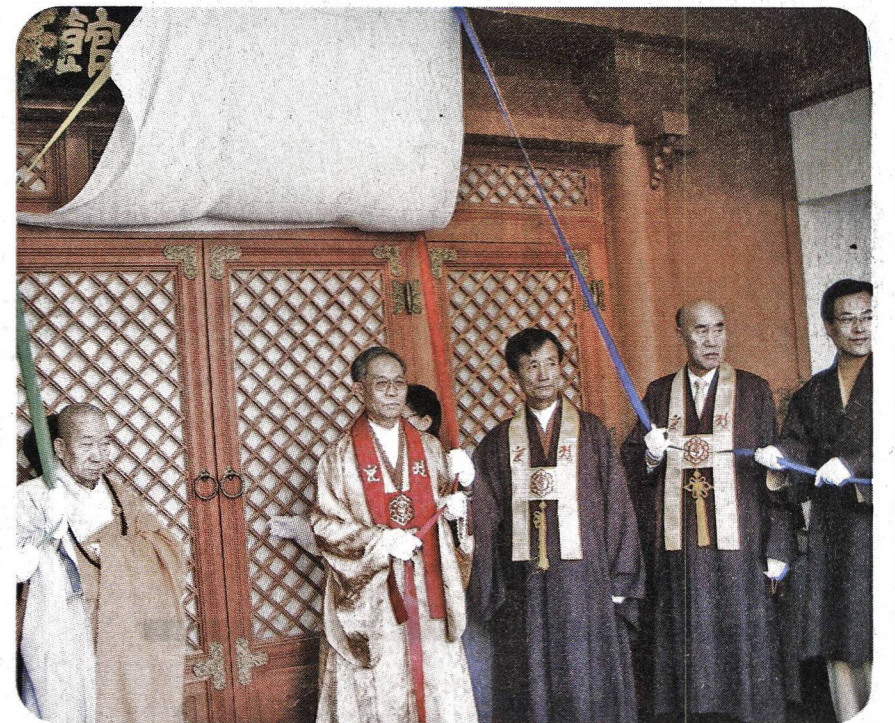
### 방생법회

7월 16일 하반기 49일 회향 방생법회를 전국사원에서 봉행하였다. 방생법회는 불교의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제거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각지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발원하였다.



### 수명관정수계법회

11월 19일과 25일 서울 총지사와 부산 정각사에 삼매야 계단을 설치하고 수명관정수계법회를 봉행하였다. 수명관정수계는 밀교에 입문한 진언행자가 자기와 인연이 맞는 불보살의 인계와 명주를 받는 것으로 보살들은 사중금계, 십선계, 십무진계를 수지하여 실천하도록 명세하였다.



### “원정기념관”개관

12월 2일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의 유해를 받들고 기리는 “원정기념관”을 총지사 2층에 건립하여 개관봉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효강 종령에하는 “원정 대성사에서 뿌리신 정통밀교의 씨앗을 잘 가꾸어 이 땅에 윤원대도의 만다라가 활짝 피어나게 할 것이며,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대성사님의 참된 유훈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승지자는 참종 초기의 열화와 같은 교화정신을 살리고 교도들은 초발심의 정진력으로 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